

조국통일운동의 출발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운동을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루어야 할 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도 가시도 나라의 통일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시지 않는다. 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하고 나라를 풍하게 하는 사상적합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양으로 양으로 갖은 방해책동을 일삼아왔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율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찾지않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아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연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침해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어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주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송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민어야 한다.

은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쫓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민족을 동진자들의 통략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든든히 틀어쥐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올려나가는 민족자주의 열망

남조선에서 외세의 배후조종밑에 일어난 5.16군사쿠데타는 뒤흔들리는 식민지파쇼 통치를 총칼로 유지하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이였다.

외세의 막후지지를 받으며 땅크와 장갑차들을 내몰아 군사정변을 단행한 박정희 군사파쇼도당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였으며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모든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은 폭력으로 해산되고 진보적인 언론출판기관들은 모조리 폐쇄당하였다.

파쇼적탄압의 주되는 창고는 남조선에서 급격히 양양되고 있던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로 돌려졌다. 군사독재《정권》은 반공을 《국시제일주의》, 《최고의 정책가치》로 내세우고 진보적사회세력 그리고 외세의 식민지에 속화정책에 장으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를 대한 파쇼적탄압을 감행하여나섰다.

이로부터 당시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마수에서 벗어나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으려는 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었고 각계에서는 민족자주를 지향하고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이를 반영하여 남조선출판물들에는 민족자주를 주장하는 론조들이 대두하였다.

《자주정신, 자주판단 그리고 자주처리란이 양보할수 없는 대원칙》

《주체성의 확립이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간섭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정치적자유의 획득을 의미한다.》

《주체성은 언제 어느때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고수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몇몇대의 밀가루와 몇몇의 딸라를 더 얻어보기 위해서 스스로 동냥을 하겠다고 나서는 무기력하고 쓸개빠진 백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원조》에 우리들자신과 후손의 운명과 장래를 맡길수야 없지 않겠는가.》

《지금은 외국에 의존해오던 라성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경제적자립이 없는 곳에 정치적독립이 없고 자주자립정신이 없는 곳에 기아해방은 없다.》 이것은 그대로 자주를 지향하는 민심의 목소리들이었다.

자주에 대한 지향은 자주통일 흐름으로 이어졌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각계층들은 《지배층들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인 립장에서 말하는것을 금기로 삼아왔고 이 금기에 거슬

리던 비애극, 불온사상, 용공주의의 악랄한 용어로 대적해왔다. 어째서 우리는 민족적, 국가적 자주성과 주체성에 립각한 통일문제관련 발언이 금기되어야 한다는것인지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파쇼도당의 《외세의존통일론》을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유엔을 믿을수 없고 외세를 또한 믿을수 없다 면 결론은 명백하다. 이제는 자신밖에 믿을것이 없다. 우리가 남의 눈치만 살피고 남의 호주머니에만 기대를 거는 사대적, 구결적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통일과 평화라는 선물은 주어지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기어코 자를결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의 집날은 없다.》라는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민족의 자주를 떠나 조국통일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군사파쇼독재에 항거해나선 남조선인민들이 찾은 진리였다.

본사기자 강무성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2015년)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화형식》을 진행하는 남조선대학생들 (1964년 3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아리랑》 등 세계를 경탄시킨 기념비적절작들과 더불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수조.

그는 공화국공민으로서 반을 수 있는 명예, 누릴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리 북반은 인간이었다.

그후 북반은 김수조는 자식들을 먹여살리느라 죽을 고생 다하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야말로 가난과 고생을 속명으로 걸버리고 태어난 불우한 인생이었다.

그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듬해에 나라가 해방되었다. 서울의 골목마다 차고넘치는 《해방만세!》의 환호소리는 김수조의 가슴을 앞날에 대한 꿈과 랑만으로 세차게 부풀게 하였다.

그러나 외국군대가 점령한 남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격정으로 들끓던 해방의 환희는 곧 슬픔과 분노로 변해 버리고말았다.

삼천리강토가 두동강나고 반만년세월 혈연을 맺고 살아온 겨레의 마음까지 두동강이 난것이다.

당시 삼급생들로부터 김수조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과 새 조국건설로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라없던 지난날 피눈물나는 생활을 겪을대로 겪어온 그에게 있어서 인민의 나라로 떠오르고있는 북은 정녕 희망의 등대가 아닐수 없었다.

정의에 굽고 리상에 불타는 열혈의 인간이라면 누구

공화국의 품에 안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총연출가



김수조선생

나 투쟁의 대오에 서게 하였다.

김수조도 범죄적인 《5.10 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대오에 합세하였다.

그 나날에 여러차례나 옥고를 치르셨지만 민족을 위하는 그의 애국의 마음은 더욱 굳세어졌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해방되자 그는 남조선무용가동맹전선부장으로 임명되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공화국정치적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해설선전하였다. 그리고 의용군에 환원해나선 수많은 예술인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선위문제를 조직하여 내보내는 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갔다.

전쟁전 서울의 한 무용원 구소에 다녔던 그는 그후 의용군에 환원하여 만행과 함께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당시)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는 진격하는 인민군부대들을 따라 안동, 포항계선까지 나가 전선위문공연을 보장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그는 늘씬 어머니와 작별하고 결연히 북행길에 올랐다. 쓰라린 지난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길뿐이라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했기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당시 국립예술극장의 무용배우로 일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공화국의 예술단성원으로 여러 나라들에 파견되어 주체조선의 예술과 승리의 기상을 떨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던 주체 47(1958)년 9월 어느날 김수조는 꿈결에도 뵈고싶던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날 동령양체육관(당시)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을 올리는 어머니수령님을 올리는 행위를 가승뜻하게 펼치보인 종합예술공연을 보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무용단 부단장으로 무용창작에 참가한 김수조의 손도 잡아주시었다. 그리고는 이제의 신인창작가들이 이렇게 자랐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해방후 예술인 부대를 꾸리기 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묶어세웠는데 이제의 3천명이라는 대부대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 김수조에게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었다.

김수조의 가슴은 격정과 환희, 보답의 일념으로 한없이 출렁일었다.

주체51(1962)년 11월 30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를 보아주시고 김수조를 비롯한 창작가들을 또다시 만나주시었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수고가 많았다고 다정히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가 얼마전에 창작한 무용 《관개수는 흐른다》가 중공을 방문하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종목에서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한다는데 이번엔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무용 《홍수와 싸우는 청년들》을 또 잘 만

들었다고, 이 동무는 《물박사》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에 인민상을 수여할것을 제의하시며 김수조를 비롯한 창조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김수조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 한분만 믿고 평양으로 왔는데 오늘 우리의 선택이 천백번 옳았다는걸 다시금 느꼈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해 김수조는 그후 국립예술극장(당시) 무용단 단장으로, 국립무용극장장 국립가무단(당시)의 예술부총장으로 사업하였다.

김수조가 공화국에서 예술인으로서는 성공한 삶을 누릴수 있었는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도 어려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와 《금강산의 노래》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를 창조지도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폐막행사의 최종시연회를 보아주시고는 7만명을 헤아리는 인원들을 한사람같이 움직이게 한다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에는 그에게 어떤 큰일을 맡겨도 잘해낼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애가창조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해주시었다.

사실 그가 평양축전과 같은 큰 행사의 총연출을 감당해낼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큰 규모의 국가적인 예술행사들의 연출을 맡겨주시고 경험과 기초를 쌓도록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 주셨기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물가까지 불러주시고 일군들에게 이 동무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폐막행사를 총지휘

한 동무라고, 축전을 통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을 세계만방에 빛내이게 하기위한 동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술행사를 책임지고 한번 본때있게 해보라고 또다시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따사로운 그 손길에 이끌려 그는 그후 피바다가극단 총장으로 사업하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총연출을 맡아하게 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성과적으로 창조되었을 때 김수조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연출을 담당한 피바다가극단 총장동무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폐막행사도 성과적으로 보장한 공로있는 동무라고, 그간의 행군을 헤쳐가는 어려운 때에 큰일을 한것만큼 정치적견지에서 볼 때 마땅히 공화국영웅칭호를 주는것이 어떤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김수조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창조하던 나날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전성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89(200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으며 진행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준비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었다.

다음해 7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을 《태양의 노래》로 하려고 한다는 그의 설명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각에 잠겼다가 제목을 《아리랑》으로 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

었다.

이렇듯 제목으로부터 형상안, 작품의 음악적기둥을 세우는 문제, 민속무용의 춤가락들과 의상, 소도구들이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아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부터 레이자조명과 특대형영화화면 등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명철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정년 세인을 경탄케 한 대결작의 창작가, 총연출가는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 공로를 김수조를 비롯한 창조성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그가 긴강한 몸으로 일하도록 외국 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창조사업을 끝낸 다음에야 일흔번째 생일을 쇠셨다는 그에게 민족의 품속대로 쇠어야 한다고 하시며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주시었다.

마침내 세계적인 판식속에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대성황리에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품창조에 참가한 수많은 창작가들과 총연출자들에 높은 급의 국가표창과 함께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김수조에게는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더없는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가난한 품팔이군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과 은은한 사랑이 다아는 김일성장군님,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가장 값진 삶을 누리였다.

그가 일흔아홉해의 생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없이, 값지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김수조의 긍지높은 한생은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한 장면